

Altered cast technique을 이용한 하악 양측성 유리단 가철성 국소의치의 Repair 증례

김연수, 이성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하악 유리단 가철성 국소의치에서는 치아와 치조제 점막이 동시에 교합압을 받게 된다. Korber, K.H.에 의하면, 치아의 수직적 침하량은 $20 \pm 10 \mu\text{m}$, 치조제 점막의 피압변위량은 $0.5 \sim 1.5 \text{mm}$ 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설계와 인상법 등이 소개되어왔다. 이들중에, 인상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보고되고 있지만, 어느 방법에서나 공통된 것은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한 상태의 치조제 점막을 기록하고, 가능한 한 넓은 부위에 압력이 분산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러한 방법 중, altered cast technique(모형 개조 인상법)은 주로 하악 유리단 의치를 대상으로 하여 결손부 치조제의 기능압 지지를 증가하고, 완성의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점막의 상태 재현을 목적으로한 상(床)에 의한 가압 인상법의 하나로서 정의되고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72세의 남자로서, 상악에는 총의치, 하악에는 양측성 유리단 가철성 국소의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의 주소는 상악 총의치의 빈번한 탈락이었으며, 초진시 상악 총의치상에서 #11과 #12번 인공치아 사이에 파절선이 관찰되었고, 구개면은 금속상으로 제작되었으며 posterial palatal sealing의 부적합이 관찰되었다. 하악은 #33과 #43을 지대치로 6분 고정성 계속 가공의치가 장착되어 있었고, 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의치상변연은 인공치아 부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치조제 부위의 점막 적합도를 fit checker로 확인한 바, 적합불량이 확인되었으며, 교합은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지 않았다. #33과 #43지대치는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하악은 overdenture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최근 수년에 걸쳐 매년 의치 제작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가급적 하악 전치부의 고정성 계속 가공의치의 제거를 원하지 않았다. 관찰결과, 하악의 metal frame의 적합상태는 양호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기로하였고, 교합시 가급적 지대치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으면서 치조제 점막 부위에 압력이 넓게 분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인상면을 얻고자하였고, 잔존치조제와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ltered cast technique을 사용하여 치조제 점막 부위의 인상을 채득하였다. 이후, 통법대로 상악 총의치, 하악 유리단 국소의치를 제작한후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